

함께 푸는 미스터리<8> 해답

김수재씨의 살인에 관한 경찰의 조사기록을 보면서 최교수는 마치 조사가 없었던 것처럼 사건을 세밀하게 검토했다. 최교수는 단서가 거의 없는 것 같은 살인사건에 직면할 때면 언제나 그런 수수께끼에 대해 '오컴의 면도' (Occam's razor) 원리를 적용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컴의 면도' 원리는 영국의 철학자 윌리엄 오브 오컴이 고안한 과학 및 철학적인 규칙이다. 이 규칙은 반드시 필요한 것 이상으로 사건의 본질을 확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면도란 토론을 깎아 내리는 아이디어를 말하는 것이다.) 바꿔 말해서 알려진 사실에 부합하는 모든 경쟁적인 이론들중에서 가장 단순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최교수의 전략은 사건과 관련된 모든 것을 검토한 뒤 가장 단순한 해답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는 아직도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피의 샘플이 발견되었고 김수재씨의 죽음과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같은 시간에 발생한 두번째의 살인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구영자씨의 피의 DNA 분석

을 요청했다. 그 결과는 구영자씨의 DNA가 김수재씨 서재에서 발견된 DNA와 정확히 부합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것이 바로 최교수가 얻은 또 하나의 증거였다.

경찰은 살인의 동기가 부족하기는 했으나 구영자씨가 김수재씨를 죽였



다는 사실이 밝혀진데 만족하고 사건을 종결하려고 했다. 그러나 최교수는 계속 '오컴의 면도' 원리를 이 살인사건에 적용하여 경찰과는 다른 해답에 도달했는데 이것은 이 사건의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살인범의 동기를 제공했다. 최교수는 텔레비전수리공인 정수선씨에게 범죄의 논리적인 해답을 제시하여 그의 자백을 비디오테이프에 수록하는데 성공했다.

최교수의 추리는 정수선씨가 김수재씨택을 두번 방문했는데 두번 모두 증인은 그를 보았고 그의 회사 기록에도 적혀 있었다.

살인사건 바로 전날 정수선씨는 김수재씨택을 찾았는데 그곳에서 김수재씨가 직업소개소에 전화를 거는 것을 들었다. 헤어지려는 부인을 잡아두기를 바라고 있던 정수선씨는 구영자씨에게 김수재씨가 비서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날 구영자씨는 김수재씨택을 찾아 갔으며 그녀는 그의 비서로 고용되었다.

정수선씨는 점심시간에 자기 부인이 일하기 시작한 김수재씨택으로 찾아 갔다. 이것은 바로 김수재씨가 아닌 구영자씨가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대목이다. 이것은 또 정수선씨의 방명이 그의 회사기록에는 적혀 있지 않다는 이유도 설명하고 있다.

이 때 김수재씨는 외출중이었다. 구영자씨는 남편에게 이제 일자리도 얻었으니 헤어지겠다고 말했다. 화가 난 정수선씨는 부인을 공격했다. 구영자씨는 옆에 있는 식도로 방어하려고 했으나 남편은 덮쳐서 목을 부러뜨렸다. 정수선씨가 부인의 시체를 차에 싣고 한강에 버리려고 집에서 들고 나오기 전에 김수재씨가 돌아왔다. 정수선씨는 살인을 감추기 위해 증인인 김수재씨를 칼로 찔러죽였다. **ST**